

Through You

(Jeremiah 1:10)

*See, I have appointed you this day over the nations and over the kingdoms,
To pluck up and to break down, To destroy and to overthrow, To build and to plant*

Jeremiah was a youth when God commissioned him to prophesy both destruction and blessing to the nation of Judah. The Lord God assured him, "everywhere I send you, you shall go, And all that I command you, you shall speak. Do not be afraid of them, For I am with you to deliver you" (vv. 7-8). Then the Lord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his mouth, and said, "Behold, 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 (v. 9). The Lord touched Jeremiah and through him tremendous things happened. He received a power beyond measure. The same is true for all Christians. Through you God will make tremendous things happen.

There is a strong and wonderful power working in God's servants. God's servants not only hear His voice, shine His light, and reveal His truth, but they manifest authority through the power of the Word. This Word is the Creator's Word. Through the Word the heavens and earth were made. God talked and creation was finished. The word of God has amazing power,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and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and piercing as far as the division of soul and spirit, of both joints and marrow, and able to judge the thoughts and intentions of the heart" (Heb. 4:12). Amen. Isn't that strong? God gives His servants the Word. He talks to His servants. He told Jeremiah, "Behold, 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 (v. 9). God clothes His servants with enormous power. The Word comes with an awesome history and mighty strength. There is so much power in the Word that God gives to His servants.

The source of servant power is spiritual. The power that came down on Jeremiah wasn't secular in nature. It didn't come from human elements, like material things. It wasn't a sword or knife. It wasn't political, popular, or psychological. It was the power of truth. Truth is strong. Servants of God can see His sovereignty. They see the governing and controlling actions of His reign. The power of His righteousness is overwhelming. God is enduring. He alone is good. He is all powerful, all knowing, and ever present. There is nothing the power of God cannot handle. Jeremiah was not a prophet in himself. He was a servant of God because He was empowered by God. It's the power of God, not the power of the servant which brings forth fruit. God's servants are just that—His servants. In themselves they have no message to give, but in God, the message of God's Word is powerful. For instance, people frequently comment that certain preachers are dynamic, they have a special presence or power in their speech. It's not the preacher, bu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at controls the power of God's Word. It's God's Word, not the preacher that edifies, encourages, equips, and exhorts people.

God's servants serve worldwide. God appointed Jeremiah "over the nations and over the kingdoms" (v. 10). Perhaps you serve in a small ministry or church and think your space is limited. Wrong! God will use you in whatever ministry position to spread His Word all over the world. All the nations and kingdoms are under you. Isn't that wonderful? The purpose of God's word is to "pluck up and to break down, to destroy and to overthrow, to build and to plant" (v. 10). The important thing is to build and plant. God watches individuals, groups, and whole nations. He doesn't just watch over the church, but the whole world. John 3:16 tells u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If people obey the Word, they will receive the blessing. God's servants have a vast territory for ministry.

The power of God's servants manifest revelation. It doesn't just shake things up, it changes history. It destroys, plucks, breaks down, overthrows, and then builds and plants. Its tremendous power isn't meant for permanent destruction but is made for the good things—the building of God's kingdom. Jesus tells us, "Do not think that I came to bring peace on the earth; I did not come to bring peace, but a sword" (Mt. 10:34). Christ's mission involves tension, persecution, and even death. The gospel divides families. When one person comes to Christ the family gets destroyed, but later on there is a foundation on which to rebuild. Revelation comes from destruction. Servants of God are called, it is their duty and responsibility, to destroy the devil's power, and then provide the avenue for repentance, forgiveness, and rebirth. There's a whole change. New life doesn't come without cost.

The wonderful power, the power for blessing, is established through the destroying, cleaning, and then rebuilding power of God's Word. A new heaven and new earth are at hand. God calls for the poor people, the sinners, to come and be His children. The very first time there is destruction and crying out to make them the best. Through them God makes His own vision. Think of Rahab in the Old Testament. She was a poor woman, a prostitute, but God used her for His service. Ruth was a Moabite, but she became an ancestor of the Messiah. Remember the Samaritan woman at the well, the one who had many husbands and the man she lived with presently wasn't even her husband? God used that woman to save a whole city. Peter, the poor fisherman, became a great disciple at the Galilee sea. The demon possessed Gerasene man, the one Jesus sacrificed 2,000 pigs for, he changed and went back to his hometown as an evangelist.

If you come to Jesus, if you repent of your sins, if you take the cross before you, God will call you. He will make through you all this earth a kingdom of God. Isn't that powerful? Jesus commanded His followers,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19-20). Jesus is going to go with you wherever you go. Don't be discouraged. It's not your power that will carry you through. He will work through you with His power. Christian doctrine is like a paradox, you deny yourself and then become God's child, His creation, His servant. Wherever you go sinners can become righteous, depressing people can turn into praising people. Even though you have to destroy and break down many barriers, God through you rebuilds and plants. He waters the soul with His powerful Word. Especially during Jeremiah's time this took place. Israel was conquered and already destroyed. Only Jesus was left. God called Jeremiah and gave him His Word. He told him not to be despondent but that through him He was going to rock this whole world, all nations, to build and plant.

My dear friend, are you a Christian? A Christian is a person who is born again. They are a child of God. If you accept Jesus the Holy Spirit will come down on you, and He will be your master. Through you God's way will be done on this earth. Amen. ■

너를 통하여

(렘 1:10)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세게 하였느니라”

김성관 목사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유다 민족을 향하여 멸망과 축복에 관한 예언을 하도록 위임받았을 때 그는 젊은이였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7~8절). 그리고 주께서는 손을 내미셔서 그의 입술에 대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네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9절). 주께서는 예레미야를 만지셨고, 그를 통해서 두려운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평강한 능력을 받았습니.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두려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강하고 놀라운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빛을 비추며 그분의 진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권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창조자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자로서 왕상하셨습니. 하나님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이므로 예레미야가 혼과 영과 힘과 관철과 골수를 찢어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 4:12). 아멘. 이것이말로 강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네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9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막강한 권능으로 옷 입히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와 위대한 능력이 되어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부여하시는 말씀에는 무한한 권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섬김의 능력으로

종의 섬김의 능력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권능은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과 같은 인간적인 요소로부터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나 견과 같은 무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이거나 대중적이지나 심리적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능력이었습니다. 진리는 감화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의의 권세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홀로 선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시며 언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스스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종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단지 그분의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전포되는 것은 설교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의한 것입니다. 설교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듣는 자들을 변화시키고, 격려하며, 준비시키고, 권면합니다.

열방과 만국을 향해

하나님의 종은 모든 세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만국 위에” 예레미야를 세우기 위해 그를 지명하셨습니다(10절). 아마도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행하거나 작은 회회를 섬기면서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가지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시기를 위해 여러분께 그 어떤 사역을 맡기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열방과 민족은 여러분께 달려있습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세게 하였느니라”(10절). 앞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 ‘건설하며 세게’라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열방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회화만을 바라보고 계시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16이 이것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매우 광대한 영명이 사역으로 주어집니다.

계시를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권세는 계시를 드러냅니다. 계시는 단지 정산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세계의 인간의 권세를 뿌리 뽑고 파괴하며 소멸시키고 넘어뜨려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시의 거대한 힘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한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감을 주러 왔노라”(마 10:34). 그리스도의 사랑은 긴장 속에 들어가고, 박해를 받으며,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까지 포함합니다. 예수와 말씀대로 복음은 가족들을 분열시킵니다. 만일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가정은 신앙으로 인하여 동요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가정이 다스림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계시는 파괴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은 약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회개와 용서와 거듭남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대가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죄인된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권세, 축복의 권세는 파괴, 결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다스림 회복됨을 통해서 건설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을 향하여 나아오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처음으로 파괴가 있고, 그들을 최고의 선에 이르게 하기 위한 부름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십니다. 구약에 기록된 기성 라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가난한 여인이었고, 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자신을 섬기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모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남편이 있었고 현재 함께 사는 남자가 여러 명이 아니었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녀를 마을 전체를 구원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 예수께서 건넌 마리의 때에 그를 희생시켰던 ‘거라사’의 남자는 변화되었고 집도자가 되어서 그의 마을로 되돌아갔습니다.

주의 명령을 주의 능력에 따라

만일 여러분이 예수께 나오신다면,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회개를 회개한다면,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자신 앞에 놓인 십자가를 짊어지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을 일꾼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모든 곳에서 건설하실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한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권세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기독교는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죄인이 의인이 될 것이며,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많은 난관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질 수 밖에 없으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심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능력의 말씀으로 갈급한 영혼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동안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복당했는데, 이미 멸망당해 있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그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모든 세계와 모든 민족을 뒤돌고, 세우고 심으실 제약을 가지고 세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 세상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

2002 충현교회 단기선교 나라소개 ②

카자흐스탄



우리가 갈 곳, 찾아야 할 사람들

카자흐스탄은 어떤 나라인가?

카자흐스탄은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를 가진 반면, 인구는 서울보다 조금 많은 1,720만 명으로 인구 밀도가 낮다. 또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고자 하는 지역'이나 '사역하고자 하는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카자흐스탄 민족 구성비율은 카자흐인 51%, 러시아인 32%, 우크라이나인 4%, 독일인 3%, 위그르인, 우즈베크인 그리고 10만 명 정도의 고려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자흐인들은 주요 정치 세력을 형성하여 카자흐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구 소련 시절 카자흐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들은 카자흐어를 배울 기회가 없어, 공식적으로 카자흐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인구의 45%인 반면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는 75%에 달하고 있다. 식자율은 98%로 카자흐어와 러시아어의 2개 어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간다면 어느 민족을 만나도 전도가 가능할 것이다. 카자흐인들은 온건한 무슬림들이며, 지방에서는 유목과 농업으로 생활을 한다. 이들에게 있어 무슬림은 종교 이전에 공기와 같은 문화로 남아 있다. 문화는 쉽게 변화되지 않으며 그들의 삶의 곳곳에 남아 가족제도, 가치관, 정체성, 심지어 음식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 만약 카자흐인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면 이 절친 문화에 덜 물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삼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역종류

1. 일대일 전도(대학교, 노방, 관광지 등)

노방 전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잡히면 벌금을 물고 추방 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사전을 검색하면 경찰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뺏는 경우도 있으며 어디에 가든 반드시 여권을 지참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노방 전도는 금지되어 있지만 집이나 강당 등 폐쇄된 공간 내에서 집회를 가지는 것은 가능하다.

2. 일대일 전도(가자 안)

카자흐스탄 중앙에 위치해 있는 카라칸다는 석탄 산지로 유명한 지역이다. 알타이에서 이곳까지 기차로 18시간이 걸리며 기차는 칸으로 나눠진 침대칸과 열린 공간에 침대가 놓여져 있는 곳으로 나뉘져 있다. 긴 기차 여행 시간을 이용하여 전도하고자 한다면 열린 침대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체로 기차 내에는 음식물을 팔지만 간단한 한국 음식을 준비해 함께 나눠 먹으며 전도하는 방법으로 일대일 전도를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카라칸다에서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린다.

3. 가정방문

카자흐스탄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음식을 대접하거나 집에 초대한다고 한다. 이러한 민족성을 미리 알고 이들과 친분관계를 맺으며 교제를 하다 초대받는다면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에 방문하기 전에

대륙성 기후로 여름에 매우 덥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긴 옷도 준비해야 한다. 여름에는 5시만 해가 뜨고 밤 10시가 넘어야 해가 지며, 섬머 타임이 실행된다. 전통적인 카자흐스탄 음식은 양파 말고기, 말유유 등이다. 이런 음식들은 유목생활에서 얻은 것들이다. 대표적인 카자흐스탄 음식인 배쉬바르마크(Beshbarmak)는 양고기나 말고기를 삶은 것으로 양파와 함께 먹는다. 또한 양 내장을 볶은 것으로 쿠르마지다. 카자흐스탄사람들은 아침에 차와 함께 신배새 나는 말유유를 함께 넣어 마신다. 이들은 유목전통으로 사람 초대하기를 좋아하며, 모르는 사람이 올 때도 음식을 대접하여 보낸다.

물가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15당 140 명게이고, 농산물은 쌀 편이지만 공산물은 모두 수입되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비싸다.

은혜로의 부르심

이 인 숙 (권사, 17교구, 몽골단기선교단원)

하나님, 오늘 구역에 매 월 잃어버린 된 자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린 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소망이 없는 자. 이들은 영원한 사망과 죄안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자들로, 우리는 이들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여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천 명의 단기선교사를 보낸다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역을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았지요. '나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해아 하는 일이다' 하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교구에서 선교훈련을 받으라는 권유에 의무감 만 호기심 만으로 훈련을 받던 중, 시간간절 강사님들이 체험하셨던 선교의 간증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마음에 동요를 주셨어요. 그저세만한 믿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목적과 계획 속에 저도 한 모퉁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소망의식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도 담대히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잃어버린 된 자를 찾아 몽골로 단기선교를 가려고 준비합니다.

하나님, 저희 17교구에서는 주일 찬양예배 후에 기도시간을 갖고 선교지에서 해야 할 전도활동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인행구과 김치 세미나 등), 금요일 집회 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며 털어 하나님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광주에 가서 직접 외국인들을 접하며 전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선교지에서 씨를 뿌리겠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당신임을 알게요, 저희는 씨뿌리는 당신의 도구로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 15:16)

기도제목

1. 전대원이 성령충만에 하서서 영혼을 사망하는 열정을 주소서.
2. 저희들에게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택한 백성을 만나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3. 전대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되고 성령이 하소서.
4. 몽골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축조회도, 어린이 인행구, 김치세미나, 학원전도)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5.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주창하시며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이성록 목사)

성경1말씀의 이해 18

인간의 제1되는 목적 ① -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17세기부터 근 350년간 세계 모든 장로교회의 교리 표준으로, 자녀 교육의 지침서로 삼아온 소위(小聖理)문답은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이었는가?'로 시작한다. 그 후 그 답은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하는 것임이다'이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요리문답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인간은 아무도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바르게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처음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범죄함으로써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대신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 자신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다(고전 10:31; 계 4:11; 시 73:25,26). 이 놀라운 인생의 목적을 누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들은, 다만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뿐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부단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더 위에 무엇을 덧붙여서 더 영화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시 19:1). 또한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시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요 17:4). 그렇다면 다음은 우리 자체가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가장 기본적으로면서도 중요한 일은 자기가 중심이 된 자리를 비워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베푸신 것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계시)을 따라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야 한다. 비록 그 삶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벧전 2:9; 고전 6:20). 다음주에 계속

하나님의 선물 선행에게

정 찬 실 (권사, 고등부 교사)

황량하고 쓸쓸했던 엄마의 겨울 속으로 따스한 봄바람을 보내 주셨던 이가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너는 내 한치의 생뿔이었고 산새들의 아침 노래처럼 신실하고 삼삼한 행복이었다. 그 노래 소리는 천상의 종처럼 영봉하였고 너는 꺼져가는 엄마의 등불에 기름을 듬뿍 부어준 천사였다. 너는 초등학교 5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끝날 때 즈음까지도 잔타타 선물을 가져다준다고 믿고 있던 순진 무구한 아이였었지. 세월은 흘러, 너도 2가 되었고 의로움과 슬픔을 타는 감성의 계절이 너를 엄습하고 있구나. 네가 이 태풍의 시절을 잘 견디도록 엄마가 말씀 속의 편편을 전하고 싶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32).

세상에 얽매어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길이다. 모든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 네 꿈을 펼치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며 지혜의 근본이신 주께 간구하여라. 너의 꿈, 네게 주신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깨끗한 통로가 되어라.

부디, 성결하고 아름다운 청소년 시절을 보내어라. 신앙의 정결을 굳게 지키는 21세기의 에스다가 되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선 두 손들고 하나님의 천상의 복을 주시려 준비하신 은혜를 내게 넘기도록 부어 주시리라. 그 은총, 그 축복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로운 자들을 위한 하늘의 것이란다. 그 축복을 받을 정결같은 그릇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니? 나는 너를 믿는다. 담대하게 홀로 서려는 소중한 딸 선행아! 정말 정말로 사랑해.

사랑하는 김지현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선영이예요.

항상 저에게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김지현 선생님, 새삼스럽게 이렇게 스승의 날을 맞아해서 편지를 쓰네요.



모래밭만 교회로 다니며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했었지만, 믿음을 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못했고 기도할 수 없었던 저에게 선생님께서도 남다른 관심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일마다 저를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하셨지요.

여러가지 어려움 일로 인하여 마음의 문이 닫혀있던 저에게 선생님께서 베푸신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가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지금의 저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입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선영이가 될게요.

선생님께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입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저에게 베풀어주시는 관심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영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다면히 범 범을 알지 못하 나 오직 성령이 인도하는 법칙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8:26)

김선영 (고등부)

'자립(自立)'

박 철 홍 (전도사, 고등부 부지도)

방배동 한 놀이터 옆에는, 작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이 있다. 건널목을 건너려면, 차가 없거나 운전자가 차를 멈추고 건너기라는 신호를 주어야 한다. 최초의 나에게는 이 방법이 전부였다. 그런데 며칠 전 나는 알고 있었던 또 한 가지의 방법을 기억해 내었다.

건널목에서 서있던 초등학교 1학년쯤으로 보이는 남자어린이 둘 여섯 명이 일제히 오른 손을 번쩍 들었다. 자기한테 차가 멈추어 서자, 아이들은 오른 팔을 어깨 바깥쪽 본인 어깨 중중잡음으로 건널목을 건너다. 손으로 도착한 아이 중에 한 명이 뒤를 돌아 운전자를 향해 '꾸벅' 인사를 했고, 운전자는 인사를 흔하며 답례를 했다.

마지 초등학교 '바른 생활' 교과서에 나오는 한 장면과 같았다. 길을 건널 때 걸어주시던 부모님의 손으로부터 '자립' 하여 건널목을 건너야 했을 때, 나도 그 아이들처럼 손을 들고 길을 건넌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통성'이라는 어려운 단어의 의미를 깨닫게 될 즈음에, 이미 손을 들고 건널목을 건너는 원리는 나에게 의미가 없었다. 때문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에도 빨간 불에 길을 건너고 한다.

'자립(自立)'이라는 의미는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해나감'을 말한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자립의 시기는 분명히 존재한다. 교회학교의 경우, 유아예배를 하는 학년층에게 자립 신앙에 관하여 학습을 하게 한다. 또한 새 신자의 경우 일정한 기간의 기본 교육과 학습, 세례 교육을 통해 그들의 '자립'을 돕는다.

'자립'은 건널목에서 손을 잡아 주시던 어머니의 거대한 손에서 벗어나 자신의 판단 하에 길을 건널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해주는 지 모른다. 그러나 신령이 있어 그 자유는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에서 자신의 판단 하에 길을 건너는 용통성을 말하지 않는다.

'십자가만 믿으면 되지만...' 주일을 성수 해야 하지만... 성교를 하긴 해야 하지만...' 요즘,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는 말이다. 그러면서 '용통성'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의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잘 언급되지하지 않음이 안타깝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립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가만히 참 내 제자되라 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1,32).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자기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들 7기" 같은 것이 자립의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죄는 지혜롭게 할만큼 힘쓰고 '용통성'을 타서 주리를 시험한다. 우리가 어떻게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불려진 많은 성령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혜에 자주 무릎 꿇는 아직 자립하지아 '미숙(未熟)'한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따라서 신앙의 자립은 교파와 부모의 신앙으로부터의 자립을 말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성경에 온전히 '자립'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으로부터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경을 의지할 때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타인의 신앙으로부터의 온전한 자립이 이뤄질 것 소망한다.

성도의 죽음을 준비하기

1. 죽음과 친해지기

한 동안 주간중환의 '양호실' 관에 계체되는 환자들 중 죽음을 준비하는 환자들을 취재했다. 그 중에는 죽음을 극복하고 새 삶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취재 후 소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바로 일 주일 전에 무병하던 모습을 담았었는데 갑자기 소천 소식을 접한다는 것은 절대 기쁜 일이 아니었다. 환자들을 취재할 때 기자의 마음은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환자 취재는 오래가지 못했다.

환자 취재가 오래 가지 못한 것은 물론 슬픔 때문이기도 했지만, 환자들과 간호인들이 겪는 죽음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없었던 이유가 가장 컸다. 천국은 우리가 가장 소망하던 곳이다. 죽는다는 것은 그 소망하던 천국으로 가는 것인데 슬퍼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친해한 빨리 죽어야 하는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오직 복음에 대한 사명 때문인가? 그러나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았던가? 과연 성도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심리학자이며 간병인으로도 활동했던 '헨리 나렌'은 그의 저서 '죽음, 가장 큰 선물'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죽음에 대해 잘 정리해 놓았다. 그는 성도의 삶은 죽음을 준비해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죽음이란 '내가 살아생전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어떤 성도의 죽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죽음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죽음을 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도의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슬픔의 원인을 하나 더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남은 자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몇 주간 헨리 나렌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을 바탕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면 좋을지, 즉 어떻게 살아 성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이 지면을 통해 충헌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기도한다. (권영희 기자)

[한국 교회사] - 교회의 형성과 발전(3)

초기 교회 박해 - 수구세력과의 갈등

1887년 9~10월 사이에 서울 정동에서 두 개의 조직교회가 설립되었다. 장로교는 언더우드 사택에서, 감리교는 베델이라는 별도의 예배당 건물에서 각각 교회를 시작한 것이다. 이 두 곳은 교회의 구심점이 되어 평양·의주·원산·부산·선전·송도·해주·인천·강화 등지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설립되는 전조 기자가 되었다. 그러나 초기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순탄하게 추진된 것만은 아니다. 기독교의 유입으로 종교뿐 아니라 사회·문화·경제·정치 분야에까지 근대화가 급속히 추진되었고 이에 위기를 느낀 보수·수구세력의 기독교에 대한 견제와 탄압도 가해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실례가 영아소동(1888), 평양기독교인 박해(1894) 등의 사건이다.

1888년 6월에 일어난 영아소동은 민중의 무지를 이용해 수구세력이 야기시킨 일종의 폭력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선교사들이 한국 어린이들을 유괴해다가 외국에 팔아 버리거나 실험 대상으로 쓰고 심지어 납액을 즐기기도 한다는 유언비어가 서울의 시중에 퍼지면서 선교사 배척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선교사뿐 아니라 선교사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한국인들은 흥분한 군중들의 습격을 받고 살해 위협을 당하였다. 이에 미국·프랑스·러시아 등 서구 공사관들이 개입하여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외국인 보호를 요청하였고, 이에 정부에서 고시문을 내붙이고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군중의 소란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1894년 5월에 평양에서도 일어났다. "서양 사람은 잡을 수 없으니 즉 조선 교인만 잡으라"라는 평양 감사 민병서의 명령으로 조선인 교인들이 체포되었다가 이틀만에 석방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 대체로 그 원인은 1) 선교사들을 배척하려는 평양 주민들의 반외세 감정, 2) 선교사들의 돈을 갈취하려는 지방 부패관리의 음모, 3) 기독교라는 외래종교에 대한 전통 종교 및 문화의 배척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앞의 영아소동과 마찬가지로 외국 공사관이 개입하여 해결되었다.

초기 기독교가 겪어야 했던 박해들은 보수 세력과 무지한 민중이 결탁해서 일어난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사건들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본질체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평양 기독교인 박해사건을 통해서 체포된 교인들은 '베코'를 강요받으며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체험을 했다. 박해가 두려워 배교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박해를 견뎌낸 소수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보다 건실한 신앙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기독교는 서서히 민족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구역장 영성훈련의 함의에 앞서

구역장 영성훈련이 갖는 의미

교회가 성장할수록 구역장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 성도들과 말씀을 직접적으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구역장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역장들의 신앙관은 구역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구역장은 상담자이다. 구역장은 구역원들의 신앙적인 상태와 가정 및 개인의 일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구역장이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크게 다르지 않다. 구역원들이 구역장을 인정하고 구역장이 열의가 있으면, 구역장은 자연스럽게 상담자가 된다. 구역장을 스스로도 자신들이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후에 구역원들에게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들을 물어보는 것이 의례적이다.

구역장은 기도자이다. 성도들 사이에서 상담자가 기도자가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실제로 필요수첩을 가지고 구역원들의 기도제목을 적으며 기도하는 구역장들도 여럿 보았다. 구역자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사소하고 개인적인 기도들도 구역장에게는 편하게 부탁하게 된다.

구역장은 교사이다. 구역장은 구역원들의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서로 나누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분명 구역장은 교사로서의 책임을 갖고 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구역장들이 자신들의 중요한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구역예배를 하고 매하는 것도 결국 구역장의 신앙이다. 아무리 구역원 없이도 구역장이 예배하기를 권하면 예배하게 된다. 실제로 구역장과 한 구역원 단 둘이서 예배하는 것을 본 적도 있다. 그 구역장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자각히 사랑 받는 자리이다. 그러나 그 구역장은 자신이 구역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책했다. 반대로 어떤 구역장은 성경과는 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그것을 모르고 있기도 했다.

교회는 교사 훈련이 필요하듯이 구역장들을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직부터 알고 있었지만, 실행 진행시키지는 못하고 있었다. 무엇인가에 시간을 투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버거움을 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버거움을 안고 '구역장 영성 훈련'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버거움이 지금은 기쁨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구역장 영성 훈련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말씀 듣고 훈련받은 기쁨과 시간이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주간충원에서는 격주로 교구별 구역장 영성훈련을 취재해 구역장들이 나누는 말씀을 들어볼 계획이다. 구역장 영성 훈련을 통해 말씀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성도들을 기대한다.

(권오섭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정수' 성도를 소개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에 딸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주교인이고 딸의 가족들은 모두 천주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 사위의 병 시중을 돌면서 그 바쁜 중에 열심히 봉사하는 딸에게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보았고 감동을 받아 천주 교회에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딸의 권유로 마음을 굳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들이 한 가족처럼 섬기는 모습에 감명 받았습니다. 또 선교도 활발하게 하고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이라고 느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새가족부 선생님이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 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한 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다음주일 간증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 전도팀을 이끌던 다니엘 웨스터 휘틀이 작사하였고, 성가대 지휘자였던 제임스 맥그리나인이 작곡한 곡이다.

휘틀의 전도 집회에는 항상 찬송이 넘쳤는데 그 대부분은 휘틀이 그의 설교를 바탕으로 하여 지작한 찬송이었다. 이 곡 역시 그런 종류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최 많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여 또한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한다는 내용이다.

- 1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당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볼 필요야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내
- 2절: 왜 내게 군세 믿음과 또 복을 주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왜 내게 성령 주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신지 난 알 수 없도다
- 3절: 주 언제 강림 하실지 속 배에 속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 사역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 그 놀라운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여 불러야 한다. 특히 절정에 달하는 후렴의 구절 '올라가는 부분은 불러 제자는 형식이 아니라 거룩 베타 감격을 소리에 담아서 안으로 되새기는 기쁨으로 약간 절제하듯이 음미하면 아름다운 찬송이 될 것이다.'

(전양위원회)

+ 양호실

1교구 소재철 안수집사(남58세) 지난 4월 30일에 위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해철 성도(남39세) 위암 4기로 입원 중입니다. 육식을 전혀 섭취할 수 없어서 영양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환우와 가족들이 믿음으로 평안할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8교구 김경희 집사(여55세) 담낭암, 간암으로 2차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 다. 복중으로 교통 중이며 식수도 잘 못합니다. 치료 과정 중 지치지 않고 병이 치유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고옥석 성도(여74세) 척추 골절로 자가 치료(퇴원) 중입니다. 몸이 빨리 회복되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야곱의 변화, 우리의 변화

김인정 (소년부 전리8반 교사)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전리8반 학생들의 삶을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형과 아버지에 속고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은 늘 불안에 떠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형의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야곱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두려웠지만 하늘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욕심 많고 탐심이 가득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와 평강을 주십니다. 늘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았으나 물결치 풍요가 결코 야곱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형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욕심이 많은 자였으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라헬과 약속한 혼례의 날을 14년 동안 손꼽아 기다리는 야곱에게서 천국의 소망을 배웁니다. 미덥지 않은 내가 가게 될 그 천국,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으나 소망있는 이땅에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분, 내 신랑되신 예수님과 만나게 될 그날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분반공무시간에 배웠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조명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주 권 : 야곱처럼 욕심을 많이 가지면 안된다. 하지만 나중에 회개해서 무서운 마음이 없어지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한 것이 배울 점이다. 법을 잘 먹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기도제목: 야곱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을 축복하게 해주세요.)



최준영 : 야곱은 욕심 때문에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 욕심을 가지지 않아야겠다. 이제부터 예배시간에 일찍 와야겠다. 친구에게 전도하고 싶다(기도제목: 두 분 할머니께서 건강하셔서 오래 오래 살게 해주세요 2주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태열 : 야곱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도망간 후에 20년 동안 설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도 이제부터 성경책을 많이 읽어와야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기도제목: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해주세요.)

민성훈 :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 돌아온 그의 집에서 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혼자 남아 기도하다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형과 행복하게 살았다. 남을 축복하면 다른 사람이 더욱 평안해진다.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속제를 잘 해야겠다(기도제목: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김다정 : 믿음을 가지야겠다. 회개해야겠다. 지만하지 않아야겠다. 거짓말하면 자주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아예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겠다(기도제목: 친구를 전도해야겠다는 것 잘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조상우 : 우리가 잘못해도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 서니 학교에 서니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부끄러워서 선생님께 말씀드려 용서를 받아야겠다(기도제목: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소원은

천양은 내 친구

원 서 영 (유년부 5학년 1반)

이 루 리 (유년부 5학년 1반)

어느 날인가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한 번 뵈는 것이 소원이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양이 없다고 강도사에게서 알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려면 말씀을 잘 읽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시기 때문이예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잘 읽으면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 우리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성경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말씀이 참으로 신기하구나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 제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외우는 암송대회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가족들과 여러 친구들 앞에서 암송했던 성경 말씀이 자주 기억이 나곤 해요. 지난 부활절에 외웠던 마태복음 28장을 정말 외우면 외울수록 그 뜻이 또렷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잘 외울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말씀의 구절, 그리고 제자들과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큰 소리로 말할 때에 저도 모르게 신이 났어요. 말씀을 외울 때 때로는 조금 힘이 들어서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그 뜻을 읽고 외웠더니 잘 되었어요. 그 때마다 저의 마음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 언니 모두 여섯 식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가족과 같이 많은 가족들도 많은 가족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느 가족이나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천양을 드리고, 같은 시간에 오고 가는 것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즐겁게 지냈답니다. 저는 하나님께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가정들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가족과 온 땅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만 계시면 다른 친구들 가정은 돌볼 수 없잖아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고 느꼈어요. 주일마다 성경공부 시간에 들려주시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어요. 그래서 나의 소원은 기도를 하면서도 친구들과 놀면서 공부도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때로는 너무나 개성있어처럼 굴어서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신다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그런 친구들도 꼭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고, 성경 말씀도 들려주면 더 좋은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 적도 예수님을 전하는 작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서영' 이의 이야기를 서영이의 어머니께서 대필해 주셨습니다.

천양은 내 친구요,

화가 아무리 많이 나도 천양을 부르면

화가 금방 풀려요,

예수님! 저는 천양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께서도 천양을

많이 받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천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바, 엄마께서는 주일 1부예배와

금요침례에 꼭 데리고 다니시랍니다,

저는 주일날 일찍 일어나고

금요일 저녁에 교회 가는 것이

짜증나고 싫을 때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예배드리는 것과 금요 침례에서

찬송을 배우고 있어서 참세하고 있어요,

그러나 잠을 잘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어려서 성경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유년부에서

강도사님과 선생님에 가르쳐 주실 때

생각이 조금씩 내서 기분이 좋아요,

저는 힘이 들어도 매주 참석해서

천양과 친구가 될 거예요,



